

## 지구촌 양계뉴스

### 미국

닭고기 생산업체, '자연적' 표시를 두고 논쟁 중

USDA는 인공적 감미료 및 화학적 보존제가 첨가되지 않은 닭고기에 '자연적'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
그러나 일부 생산업체, 정치인, 건강 옹호자들이 닭고기에 소금을 첨가하여 나트륨의 성분을 두배 또는 세배 증가시켜 닭고기의 중량을 10%까지 늘릴 수 있고, 이러한 닭고기는 소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.

이러한 소금 및 물 등을 첨가한 닭고기에 '자연적'이라는 표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닭고기 생산업체의 논쟁은 연방정부로 하여금 표시기준을 개정하도록 촉구했다.

USDA의 FSIS는 올해 가을에 새로운 개정된 표시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.

- AP

### 1톤 닭튀김 나눠줘 세계 기록 경신

1,100kg이 넘는 '닭 튀김'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가 열렸다고 지난 8월

17일 푸드뉴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.


'세계 기록 닭 튀김 행사'는 최근 미국의 유명 치킨 업체 주최로 미국 캔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렸다. 회사 측은 닭 튀김 출시 70주년을 기념해 이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. 엄청난 분량의 닭을 튀겨 길이 2.5m, 폭 2.7m의 초대형 용기에 가득 채웠고, 2,493.35 파운드의 닭튀김을 시민들에게 나눠준 것.

이 행사를 통해 '닭 튀김 세계 기록'이 경신되었는데, 회사 측은 남은 음식을 푸드뱅크 등에 기부했다고 언론은 덧붙였다.

- 팝뉴스

### 러시아 검사관의 미국 가금 시설 검증 논의

러시아는 지난 7월 14일에 합의된 가금 무역 협약과 별도로 러시아 검사관을 미국 내 가금 시설에 보내 미국 가금 시설이 합의된 위생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해 줄 것을 요구했다.

그러나 미국 정부는 합의된 협약을 러시아가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. 

- USAHA